

말하기 교육의 내용으로서 ‘배려적 사고’의 개념 탐구*

서현석**

〈차 례〉

- I. 서론
- II. ‘배려적 사고’의 개념
- III. 말하기 교육에서 ‘배려적 사고’ 의의
- IV. 결론

I. 서론

국어교육은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삶의 형식에 관여하는 교과이다. 말과 글은 우리의 생각과 신체에 깊이 영향을 발휘하고 관계로 맺어진 실제 삶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결과로서의 지식을 아는 것이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삶에서 풍요로운 국어사용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어 교육의 일이다. 즉, 국어사용의 방법을 알게 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올바른 국어사용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궁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일이 좀 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학습자의 국어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자신의 말은 잘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듣고 말하지는 못하며, 무

* 이 글은 2006년 11월 25일에 개최된 국어교육학회 제 35회 정기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 날 토론해 주신 교육과정평가원의 노은희 선생님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 전공 겸임교수

엇이 바람직한 말하기인가에 대한 관점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¹⁾

얼마 전까지 한 사람의 청자가 다른 화자의 말을 단순히 전달받는 선조적 관점에서 말의 정확한 표현과 이해가 중요시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냐는 전략적 접근 중심의 화법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 참여자의 인간적 관계나 감정의 공유가 중요하며, 그 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도록 이끄는 말하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계적 측면이나 상대방을 고려한 언어 사용이 중요함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말하기 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인간의 의사소통은 대화 참여자의 ‘인격’을 가져와야만 가능한 것으로, 말하기·듣기 교육은 명제로 기술된 원리나 표현의 방법, 전략 등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 말하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서 ‘배려적 사고’의 개념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국어적 사고력을 보완해 줄 구성 요소로 ‘배려적 사고’를 설정함으로써 국어 교육에서 ‘말하기와 듣기와 관련된 배려적인 삶의 형식’을 좀 더 강조하여 다루어야함을 논하고자한다.

II. ‘배려적 사고’의 개념

1. ‘배려(care)’의 뜻

배려하고 배려를 받는 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1) 학습자의 언어 실태에 대하여 정상섭(2006 : 77~137)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유아기 때나 이플 때, 혹은 노년기의 배려에 대한 욕구는 매우 절박하며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배려 행동을 수반하는 특수한 배려의 태도가 필요하다. 요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이해되고, 수용되며, 존중 받고,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타인의 배려가 요구된다(추병완 외 역, 2002).

Noddings에 의하면, ‘배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배려의 관계’를 맺어야 작용이 가능하다. 즉, 배려는 배려자와 피배려자라는 두 인간의 연관성, 혹은 만남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연관되어 만나게 된 두 사람의 관계가 적절하게 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배려에 기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배려는 완성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주 열성적인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그러한 배려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님들이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아요!”라고 불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Noddings(1984)는 배려하고 있는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전념(engrossment)’과 ‘동기적 전이(motivation displacement)’로 설명하고 있다. 전념은 피배려자에 대한 개방되고 비선택적인 감수성(receptivity)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주의력(attention)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주의 깊음’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는 방식이 주의 깊은 것이다. 영혼은 영혼이 바라보고 있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내용물을 비워버린다. 주의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Weil, Simone, 1951 : 115

위의 인용에서 타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영혼이 스스로 자신의 내용물들을 비운다고 말하는 것은 ‘배려’의 한 요소인 전념을 잘 설명해 준다. ‘배려’는 심취(infatuation) · 매혹(enchantment) · 망상(obsession)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수용’을 의미한다. 배려할 때, 타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주의력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라고 물어볼 때의 의식 상태로도 잘 설명된다. 전념 혹은 주의력은 단지 2~3분만 지속될 수도 있으며, 또는 앞으로의 만남에서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배려의 관계에서든지 본질적이다. 일례로 낯선 사람이 길을 묻는다면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이 배려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길을 알려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식에 반응한다. 그 때, 배려의 관계는 길을 물어본 이가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의 배려하려는 노력을 수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위에서 언급한 짧은 만남에서 배려하려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며,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열망을 느낀다. 그 때의 느끼는 배려자의 의식이 ‘동기적 전이’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자신의 일로 머릿속이 가득했으나 지금은 길을 찾으려는 그 낯선 사람의 문제에 마음을 쓰게 된다. 이것은 신발끈을 매려고 애쓰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를 목격했을 때, 우리의 손가락이 신발끈을 매는 듯이 느껴질 때의 감정과 같다. Noddings는 ‘동기적 전이’가 있어야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동기적 전이’의 경험에서부터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자신의 일에 대해서 고려·계획·성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Lipman(2005)도 ‘배려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그것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Noddings가 말하는 ‘배려’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배려’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요청되는 삶의 기본 형태이다. ‘배려’는 전심을 기울이고 집중함으로써 타인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그 작동의 성공 여부는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2. ‘배려적 사고’의 의미와 성격

사고란 어떤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인간의 의도적인 정신 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이 정신 작용을 일으키고 작동할 수 있는 힘을 ‘사고력’이라고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어떤 대상을 인식하거나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고는 ‘고등(高等)사고’에 해당한다(이삼형 외, 2000 : 164). ‘배려함’은 단순히 ‘생각(사고)’이 시작되는 원인이 아니라 사고 그 자체이며, 사고력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배려함’이 대안들을 찾고 관계를 발견하거나 만들어 내며, 나아가 관계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차이를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과 같은 정신 작용을 수행할 때, 그것은 일종의 사고력이다.

Lipman에 의하면, ‘배려적 사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열망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진환·김혜숙 역, 2005 : 336). “엄마가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야, 엄마가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아이에게 관심이 생긴 거야”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무언가가 우습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과 같이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며, 엄마의 관심은 바로 자신의 아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우리는 중요한 것에 대해 마음을 쓴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도의 문제이며,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에 달려 있다. 귀한 돌이 흔한 돌보다 그 자체로 더 소중하거나 덜 소중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소중한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 혹은 배려(caring), 즉 그 가치에 대한 우리들의 신중한 분별력에 달려있다.

인간의 의도적인 정신작용으로서 ‘배려적 사고’에 대하여 그에 포함되는 사고의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그 성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배려적 사고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Lipman, 1995 : 1~13 ; 박진환·김혜숙 역, 2005 : 339~346).

첫째, 배려적 사고는 가치 부여적 사고이다. 듀이는 소중히 여기기(prizing)와 감정하기(appraising), 존중하기(esteeeming)와 어림잡아 평가하기(estimating), 가치있게 여기기(valuing)와 평가하기(evaluating)를 각각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즉, 소중히 여기기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워함을 의미하는 반면, 감정하기는 가치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중히 여기기는 명백한 인격적(personal) 준거를 가지고 있으며, “감정적(感情的) 측면의 특질”을 가진다. 한편, 감정(鑑定)하기는 대체로 지적인 측면이라고 하였다.²⁾ 가치있게 여긴다는 것(to value)은 가치를 부여하여(to appreciate)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평가한다는 것(to evaluate)은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소중히 여기기(prizing)와 감정하기(appraising)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이다. 조금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가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고 경탄하고 마음에 품어둔다는 것은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관계들의 가치에 관련된다. 요컨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둘째, 배려적 사고는 정서적 사고(Affective thinking)이다. 감정이 이성의 작용에 방해 한다는 가정 대신에 판단의 한 형태이며, 좀 더 넓게는 생각의 한 형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은 일종의 생각이다. 다른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틀렸을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조차 부나 명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같이 잘못된 감정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Nussbaum(1992 : 209~210)은 ‘감정이 없다면 판단도 완전하지 않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감정도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독자에게 어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독자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써야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적어도 어떤 감정은 판단의 단순한 심리적 결과가 아니다. 감정도 하나의 판단이다. 이방인에게 가해지는 아주 심한 경멸을 대할 때 느끼는 분노는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일종의 판단이다.

2) John Dewey(1939), “Theory of Valu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5.

셋째, 배려적 사고는 행동적 사고이다. 인지적인 감정이 있다면 인지적인 행동도 있을 수 있다. 몸짓 언어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몸짓이 있고 얼굴 표정도 있다. 의미있는 표준을 가지지 못한 행동조차도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의미를 갖는다. 정서적인 느낌으로 관심을 갖는 것과 돌보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관심을 갖는 것은 가치 부여적이거나 정서적인 사고이고, 돌보는 것은 행동적 사고이다. 여기서 “행동적”이라는 용어는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고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행동적 사고(Active thinking)에 대한 하나의 예는 관심이 가는 대상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이나 외양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간의 나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애쓴다. 전제의 참을 결론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논리학자나 문장의 의미를 다른 언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는 번역가와 같이 추상적인 가치를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행동적 사고의 또 다른 형태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이다. 야구와 같은 운동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세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다소 개방적인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1루 다음에는 꼭 2루를 밟아야 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번트나 병살타 플레이처럼 창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그러한 행동은 인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대부분의 전문적인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배려적 사고는 규범적 사고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지향하는 것과 지향해야 할 것을 잘 연결시켜서 고려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향해야 할 것, 즉 바람직함이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고 반성하여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이나 계획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가 바람직해진다. 배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상적인 배려적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자 주의 기울인다. 규범을 고려한다는 것은 인지적인 것이며, 배려의 다른 측면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규범적 사고 역시 인지적이다.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은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세상이 어떤 곳이며,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섯째, 배려적 사고는 감정이입적 사고이다. 감정이입(empathy)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아주 넓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고 자신이 그들인 것처럼 그들의 감정과 경험에 빠져보는 것으로 한정지어 생각한다. 감정이입은 배려의 한 방법인데, 우리 자신의 느낌과 시각과 전망으로부터 몇 걸음 뒤로 물러서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과 전망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감정이입적인 상상이 사적이고 개인적이며 아주 주관적인 행위라는 점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의 몸짓과 행동과 지각과 경험과 의미와 상징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M. Johnson, 1993 : 201). 감정을 통해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각자가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지적이고 언어적인 요소만을 평가했을 뿐, 서로의 이해가 현실이 되게 하는 감정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배려적 사고는 대안들을 찾고 관계를 발견하거나 발전시키고, 차이를 판단하고 조절해가는 데 작동하는 정신적 작용이다. 배려적 사고를 행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인격적 준거’로서 관계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배려적 사고 작용은 가치를 보존하고 복합적 상황에 전문적인 판단을 수행하는 것이며 규범적 사고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타인의 감정과 경험에 몰입하여 생각하는 감정이입이 포함된다.

Ⅲ. 말하기 교육에서 ‘배려적 사고’ 의의

1. 인간 의사소통의 상호 주관적 특성 반영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하고 남이 뜻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의미 공유의 가능성은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성이란, 사람들 사이에 의미가 통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의미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서로 흥정하고 조정하면서 맞추어간다는 뜻이다. 즉, 의미의 공유란 사회적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성은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네 가지 논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홍기선, 2002 : 25~26).

첫째는 사람이 사용하는 기호는 그 의미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 경험을 통해 기호의 의미를 검토하고 확인하면서 사람은 보다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둘째는 첫 번째와 대조되는 논거로, 사람이 자신을 진실하게 나타내면 남도 이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직관능력에 근거를 둔다. 사람은 서로 생각과 느낌을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직관능력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본다. 셋째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천부적 능력보다는 공통된 문화의식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공통의 기질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질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침잠해서, 같은 문화권에서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거의 본능적으로 교환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사람에게는 같이 관심을 나누고 삶을 영위하는 생활영역이 있는데, 이러한 생활영역은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의미 공동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의미공동체 안에서 어떤 소리나 행동(기호)은 무엇을 뜻하는지(의미) 쉽게 파악한다.

이러한 네 가지 논거는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즉,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기호와 그 기호에 따른 의미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기호는 그 의미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흥정과 협의의 대상인 사회적 산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의사소통 한다는 것은 ‘정확히 의사소통을 했는가?’라는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생각과 느낌을 맞추어 가는 수렴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정춘(1988)은 인류 발생사적 관점에서 인간만이 자연에서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불어 생존하기 위해서 언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의미 전달에는 서로에 대한 관계 규정과 개인적 입장이 담겨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모든 전달은 일정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송신자가 수용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다. 또한 의미의 전달은 송신자가 어떻게 자신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를 보는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송신자의 개인적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내용과 관계 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정춘 편, 1988 : 285

한편, Buber(1954)는 인간이란 독자적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인격과의 공존적 관계 속에서 실존한다고 하면서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상호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남은 ‘나’와 ‘너’의 존재론적인 ‘사이’에서 성립하며, 이 ‘사이’에서 서로가 전인격을 반영하는 행위로써 상호관계를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으로 보았다. Buber는 사람들의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만남을 강조하며 이 ‘만남’을 상호주관성 형성의 과정으로 여겼던 것이다. Rommertveit(1979)에 의하면 상호주관성은 ‘예기(prolepsis, 豫期)’를 통해 성취되며, 예기는 그들이 참여하는 대화가 진지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성립 가

능하다. 즉, 예기는 말할 때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청자가 짐작하여 헤아린다는 의미인데, 상호주관성 구성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상호주관성은 대화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 또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해 관계 맺고 있는 상대방에게 노력을 기울여 공통된 의미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서로의 판단과 인격이 관여하게 되며, 단순히 결과로서의 표현된 ‘내용’만이 전달되지 않는다.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인격적 판단 즉,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상호주관을 형성해 감으로써 타자와의 ‘삶’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 과정에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판단, 가치판단에 따른 행위적 노력, 끊임없는 반성적 자세와 감정이입의 측면이 깊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고를 발달시키는 스키마가 연역적 사고나 기타 엄격한 합리적 사고만으로는 풍성해질 수 없으며, 정서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2. ‘국어적 사고력’의 보완

그 동안 국어 교육 영역에서 ‘사고력’은 크게 인지 중심적 사고와 정의 중심적 사고로 양분되어 논의되었으며, 특히 인지 중심적 사고에 치우쳐 연구되어 왔다. 이삼형 외(2000)에서 국어적 사고력을 ‘국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들(정보·정서 등)을 인식·조정·생산(혹은 창조)하는 사고 수행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확연히 구별되지는 않으나 국어적 사고 작용에는 중심적 사고와 정의 중심적 사고가 있는데, 인지 중심적 사고는 설명적 텍스트와 정의 중심적 사고는 문학적 텍스트와 좀 더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너무나 확연하게 특징적인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하게 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 1〉 국어적 사고력의 유형(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8 : 380~382)

인지 중심적 사고	• 사실적 사고 : 개념 파악, 분석(수렴적 사고), 기억, 재생, 내용과 구조의 이해 • 추리적 사고 : 추리(논리, 해석, 판단), 상상, 내용과 과정의 추리 • 비판적 사고 : 텍스트 내적(정확성, 적절성)판단, 외적(타당성, 효율성)판단 • 논리적 사고 : 언어 논리, 추론
정의 중심적 사고	• 정서적 사고 : 반응, 연상, 상상, 내면화 • 심미적 사고 : 미추 판단, 오호 판단, 형상화 • 윤리적 사고 : 선악판단, 가치판단, 세계관

국어 교육의 논의 안에서 국어사용을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고 ‘그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즉,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 전략이나 방법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논리성과 합리성에 주목한 논리적·비판적 사고만을 강조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표 1>의 내용과 같이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998)에서는 언어적 사고력의 유형으로 어휘적 능력, 사실적 사고 능력,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국어적 사고력의 유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국어 평가 목표 영역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이는 언어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국어 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³⁾

전통적으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개념적·언어적 성격을 가져왔다. 즉, 일반적으로 사고를 지칭할 때는 인지 중심적 사고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작용은 인식 주체가 인식대상과 하나가 되어 그 대상에 몰입하는 과정, ‘감정이입(empathy)’이 필요하며, 인식 주체의 상상적 작용이 개입되어야 한다. 즉, 정신작용은 주체의 상상력과 대상의 특성이 합쳐져서 발생하는 의식이다. 이때의 상상력은 주체자의 적극적인 인식 참여에 의하여 대상 속성에 대한 지각에 근거한 상상이기에 현상적 객관성을 갖는 동시에, 감정이입에서 확인되듯 논리적이며 개념적인 성격의 사

3) 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가르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야 하는지, 혹 구별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고 본다.

고와는 달리 정서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부연하면, 의미를 생성·조직·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을 이해하고, 추리·비판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활동들이며, 여기에 중요하게 덧붙여야 할 것은 정서적·심미적·윤리적 사고와 판단까지이다(이삼형 외, 2000 : 167).

정서적 측면의 사고는 지금까지 교육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데카르트적 전통에 의해 명료성과 명확성이 진리의 기준으로서 당연시되었고, 감정은 오류를 범하게 하는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 사람의 감정은 사고를 모호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한 예로 국어교육학 사전(1999 : 372)에서는 비판적 사고란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평가·분류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하위 요소로 건전한 회의성(懷疑性), 지적 정직성(知的 正直性), 객관성(客觀性), 체계성(體系性), 철저성(徹底性) 등 다섯 가지를 든다. 이중에서 특히 객관성은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성향’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감정과 주관을 배제되어야 할 것, 즉 타당한 근거와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언어 텍스트 산출의 표현 원천에는 발신자의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데, 같은 지시대상을 보고도 ‘날썩하다’와 ‘말랐다’와 같이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지시대상에 대한 개인의 정서와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심층적인 텍스트의 이해’ 그리고 내면화와 실천의 문제와 관련될 때, 더욱 중요해진다. 대상에 대한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한 의식없이 어떤 것의 좋음이나 나쁨, 아름다움이나 추함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Lipman은 ‘배려적 사고’를 모든 감정적 사고들의 상징이거나 전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배려적 사고’가 감정적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표 1>에 제시된 국어적 사고력의 내용에서, 인지 중심적 사고에서 속하는 추리는 어떤 자료나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

은 의미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미루어 파악하는 사고 과정이며, 논리적 사고에서 추론은 추리와 달리 미리 알려진 어떤 판단에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또, 비판적 사고는 텍스트에 대한 내외적 판단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인지 중심적 사고’에 대한 설명만 보아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판단’이다. 특히 고등 사고의 작용 즉, 어떤 대상을 인식하거나 변화를 초래하는 사고 작용에는, 외적인 맥락을 고려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내적 기준을 적용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판단’은 해결되거나 결정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력으로서 판단’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탐구와 판단을 반드시 과정과 결과라는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모든 탐구가 판단을 만들어내지는 않으며, 모든 판단이 탐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탐구의 결과를 가지고 탐구과정을 종합하고 평가하기가 쉽다. 그러나 ‘판단한다’는 것은 관계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그 때의 관계들은 발견된 것일 수도 있고, 발명된 것일 수도 있다. 적절한 이유 없이 주장할 수 없듯이 적절한 기준 없이는 어떤 판단도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개인의 적절한 기준의 적용과 판단 과정에 관여하는 사고력으로써 ‘배려적 사고’는 인지 중심적 사고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여러 논저에서 살펴보면, 감정이 사고를 혼란스럽고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에서 사고를 명백히 하고 정리하게 해주는 조건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lgin에 의하면, 감정은 ‘사고함’에 있어 초점을 맞추는(focusing) 역할, 준거 틀을 형성해 주는(framing) 역할, 확신시켜 주는(embedding) 역할, 강조해 주는(emphasizing) 역할 등으로 기여한다 (Antonio D, 1999 : 144~169). 확실히 감정은 관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감각적 분별력을 좀 더 치밀하게 만든다. ‘청자가 듣는 것은 듣고자 원하는 것에 의존한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하다. 부모가 그렇다는 것을 아이가 알았을 때, 아이는 자기의 울음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의식하면서 소리 내어 운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매우 좋은

예이다.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나뉘어 있던 ‘국어적 사고’에는 국어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에 대한 관심과 판단으로서 ‘배려적 사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배려적 사고’는 국어적 사고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사고력은 지식기반, 성향, 인지적 조작력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작용할 수 있다. 이 중에 성향이란 그 자체로 직접 관찰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읽 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행동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 활동을 시작 하고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⁴⁾ 말하기 수행에 있어 한 화자가 ‘말할 거리(생각, 지식기반)’를 풍부히 가지고 있고, 훌륭한 방법으로 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지적 조작력)이 충분하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그가 말하기에 관심이 없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더 잘 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하기에 대한 ‘배려적 사고’가 결여된 채, 결코 바람직한 화자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3. 우리의 말하기 방식으로 ‘배려적 사고’

국어사용 과정에서 화자는 기본적으로 국어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며, 한국인의 사고 역시 또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어 화자는 모어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말을 하게 된다. 국어적 사고 과정인 국어 활동은 언어적·사회·문화적·심리적 측면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동양과 서양의 의사소통 사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
- 4) 인지 중심적 사고의 요소로서 ‘성향’은 다음의 세 유형으로 설명된다(이삼형 외, 2000 : 212~213).
- 정의적 성향(과제 집착성, 도전성, 호기심, 독자성(자기 아이디어에 자부심을 가지며, 또한 남의 비평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경향 등).
 - 창의적 성향(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
 - 기능적, 방법적 성향(민감성, 정교성, 의구성 등).

즉, 서양의 의사소통 사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대상은 언어로 치환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모든 기의는 기표로서 대체될 수 있다는 구조주의 기호학이 바로 이런 서양의 의사소통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그 출발은 이항대립 구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밤과 낮, 삶과 죽음, 선과 악, 민주와 반민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대상을 언어로서 표현할 때 그 대상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들은 변화 과정, 생성 과정의 한 순간일 따름이다. 어떻게 밤과 낮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동녘에 떠오르는 ‘새벽’은 과연 ‘밤’일까 ‘낮’일까? 서양의 의사소통 사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낮’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는 이항 대립적 분화를 거듭한다. 물론 그 분화의 끝은 ‘0’와 ‘1’로 구분되는 디지털식 표현방식이다. 이런 분화 뒤에는 객관성과 명료성에 의해 의사소통이 지배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다(김정탁, 2005 : 5~6).

이러한 서양의 의사소통관은 현재 우리의 교육 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철성 외(1998 : 114)에서는 ‘따지고 보면’이란 식의 비판적인 말투는 우리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무슨 말이든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따지고 들어 논리적으로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학교 교육의 말하기 시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언어 사용 활동을 통해 익히 배웠다는 것이다. 그 극단적인 태도가 이른바 ‘논리 싸움’의 형태이다. 말 잘하는 똑똑한 사람, 그래서 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학교의 말 교육이 키우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최근 일고 있는 토론 교육의 인기 속에는 일면 ‘논리적 대립’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명백히 내세우는 훈련을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논증과 깊이 연관되는 수사학에서조차 인간의 말과 사고의 문제를 ‘전체적 인간’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수사학은 냉철한 이성이나 논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정념 그리고 육체와 감각까지를 포함하는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 표현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문체론으로 전락하여 장식적

인 수사법과 배열의 기술 정도로 한정될 위험이 있으며, 생각 즉, 사고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형식 논리학의 건조한 틀에 갇혀버릴 위험이 있다. 눈과 위, 머리와 심장, 이성과 감각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적 수사학이 서구 수사적 전통의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이며 이른바 통각적인 것을 지향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한 패러다임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박성창, 2000 : 8~9).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은 일찌감치 의사소통이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예를 들어 노장(老莊)사상의 핵심적 텍스트인 ‘도덕경(道德經)’ 제 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⁵⁾이란 구절은 언어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표명함으로써 의사소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시한다. 노장 사상에서 말하는 언어도단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사상이 바로 공맹(孔孟)사상이다. 공맹사상의 의사소통 사상은 정명사상(定名思想)과 언행일치(言行一致)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말 문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우리 조상들은 기표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서 대상인 기의를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제된 의사소통의 방식을 지향하여왔다. 김정탁(2005)은 이런 표현 방식을 ‘모든 것을 객관화하고 명료화하려는 ‘법리적’ 표현에 반대되는 ‘예술적’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을 ‘예(藝)’로 상징화하고 있다. 또한 공맹 철학에 있어서 기표란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은 대상과 행동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때 대상과 행동인 기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맹은 언어보다 몸을 더욱 중요한 기표로서 상징하고, 언어와 행동의 일치, 즉 언행일치를 강조한다. 이 점은 몸 담론(행합)을 제외하고 텍스트 분석에만 치중하는 서양의 의사소통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의 의사소통의 전통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예(禮)’로 상징화된다. 우리의 의사소통 전통을 ‘예(藝)와 예(禮)’로 상징화한 김정탁의 견해는 우리의 의사소통의 특성을 간명하면서도 매우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에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의도를 잘

5)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요 이름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헤아려 그에 알맞은 반응을 보이는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깃들여 있다. 우리의 배려적 말하기 방식은 선비와 어린이와 부녀자의 언어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덕무의 <士小節>에 잘 나타난다.

여름에 솜옷을 입은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덥더라도 덥다고 하지 말고, 홑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춥다고 말하지 말며, 굶주린 사람을 보고 밥을 먹을 때에는 음식의 간이 맞지 않은 것을 탄식하지 말라.

—손인수, 1987 : 288

위 글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해야 함을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배려의 말 문화를 다음 대화 사례 속에서 살펴보자.

어느 날 밤 다 떨어져 너털너털해진 아들과 아내의 슬리퍼를 발견한 남편은 다음날 새 슬리퍼를 사 들고 집으로 왔다. 그런데 막상 신겨 보니 슬리퍼가 아내의 발에 비해 너무 컸다.

남편 : 크구먼.

아내 : (미소를 머금고) 아니어요. 이렇게 신어야 편해요.

남편 : (피식 웃는다)

—상생화용 연구소 편, 2005 : 95~98

위 대화에 의사소통 규칙을 적용하여 분석하자면 아내는 ‘진실성의 규칙’을 어기고 있다. 실제로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신을 잘 맞는다고 거짓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이미 알아 채 아내의 발에 비해 한참 큰 슬리퍼가 정말 자신에게 꼭 알맞다고 느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장에 가서 슬리퍼를 골랐을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내는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온 슬리퍼’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대답을 한 것이다. 남편 또한 아내의 속마음을 읽었고, 이를 말없는 웃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가난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관심으

로써 ‘배려적 사고’와 통명스러운 남편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판단해 내는 아내의 ‘배려적 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말하기 방식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 중에는 이런 상황에서 ‘여태껏 내 발 사이즈가 230cm인 것도 몰랐느냐, 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샀느냐, 어디서 샀느냐, 얼마주고 샀느냐, 교환해서 신어야하겠다’등 정확하게 따져 묻고 좀 더 합리적인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말 문화 안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있는 그대로 피력하지 않고 절제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반응하는 방식, 즉 ‘배려적 사고’에 의한 말하기 원리와 방법이 존재한다.

IV. 결론

‘말하기’를 배우는 것은 기술을 습득하거나 기술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말할 무언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모어 화자로서 말하기를 학습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기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판단력을 길러 나가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 말하기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에게 기술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하기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를 탐구하고 판단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도구이기는 하되, 그것은 수단이자 인식 그 자체이며 그것이 바로 삶의 양상이라고 본다면 언어 능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인식과 가치의 문제’라는 견해(김대행, 1997)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박인기(2002)는 ‘문식성이란 지금의 담화공동체가 가치롭게 여기는 이해와 표현 능력’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가치의 문제는 중립적이지 않다. 국어 교육에서 ‘가치지향’은 다름 아닌 학습자로 하여금 국어사용이 삶에 미치는 본질적 영향력을 깨닫게 하고, 어떤 방식을 택하여 국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표현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일이다. 지금의 학습자들은 그야말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통합적인 언어 사용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현대인의 인간 소외 현상과 더불어, 좀 더 중요하게 된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해와 표현의 소통 능력이다. 이런 면에서 말하기·듣기는 능력은 단지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잘 모르는 청자와도 의미를 공유하고 생성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의미하게 된다. 상대방과 ‘함께 의미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상황맥락이 요구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 청자 그리고 사고자(思考者)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한다(서현석, 2005 : 172~173).

말하기에 참여한 화자와 청자는 그 과정에 자신의 전인격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하기 교육에서는 말하는 ‘방법’에만 관심을 두어 온 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적 사고력’에 ‘배려적 사고’를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의미 있고 균형 잡힌 말하기 교육의 내용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말하기의 과정’에 ‘배려적 사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주체의 의도적 정신작용인 ‘배려적 사고’는 (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2) 판단으로서의 감정이며, (3) 관심을 갖고 돌보고 보존하며 복잡한 상황에 창의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이며, (4)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며, (5) 감정을 이입하는 사고로서 말하기 능력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성영(1994 : 197)은 표현 의도는 표현 방식을 선택하는 기제가 되며, 화자가 표현 방식을 선택할 경우 주로 관련되는 사고력은 ‘합리적인 판단력’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즉, 경제성 원리와 공손성 원리에서처럼 표현 방식을 지배하는 원리들도 서로 상치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화자는 특정 발화 상황에 관여하는 모든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기에 참여하고 있는 화자에게 있어 합리적인 판단은 자신의 인격을 반영한 판단으로 만드시 ‘배려적 사고’가

작용한다. 모든 판단은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의 표현이면서 그 개인이 내리는 평가이다. 총체적이며 복합적인 상황 맥락이 관여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개인의 발화는 하나의 판단으로서 ‘배려적 사고’가 작용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판단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판단의 적절한 조합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좋은 판단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경험을 좀 더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좋은 판단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판단이며,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을 풍부하게 하는 판단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끊임없이 요청되는 판단은 ‘배려적 사고’를 충분히 반영한 것일 때 좀 더 적절한 것이 된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말을 나누며 삶을 영위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말’을 통한 배려적 삶의 방식은 가장 필수적인 말하기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배려적 사고’ 그 자체가 말하기 교육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예술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판단을 통해 미적 체험을 좀더 풍부히 하기 위해서이다. ‘배려적 사고’의 의한 의사소통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사소통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한 태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고등 사고력으로 서 ‘배려적 사고’의 개념과 성격을 탐구하고 말하기 교육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국어적 사고력’의 개념을 계속적으로 정교화하고, 확장해 갈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다른 국어과 영역에 비해 연구가 미약한 ‘말하기·듣기’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려는 작은 노력이라 하겠다. ‘배려적 사고’에 대한 연구는 말하기·듣기 교육의 실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와 관련지어 연구될 때 좀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인데, 그 일은 후속 연구에서 다룰 것을 약속한다.*

* 본 논문은 2007. 2. 15. 투고되었으며, 2007. 3. 9. 심사가 시작되어 2007. 3.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대행(1997), “영국의 문학교육”, 『국어교육연구』 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정탁(2004), 『禮&藝－한국인의 의사소통 사상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 p.5~6.
- 박성창(2000),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pp.8~9.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 교육학회 2002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상생화용연구소 편(2005), 『내 말에 상처받았나?』, 커뮤니케이션북스, pp.95~98.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pp.380~382.
- 서현석(2005), 『말하기·듣기 수업 과정 연구』, 박이정, pp.172~173.
- 손인수(1987),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문음사, p.228.
-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pp.164~167.
- 이성영(1994), “표현 의도의 표현 방식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97.
- 이정춘 편(1988), 『커뮤니케이션 과학』, 나남출판, p.285.
- 이홍우(2006), 『지식의 구조와 교과』, 개정증보판, 교육과학사.
- 임철성 외(1998), “인성 교육을 위한 중등학교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 연구 보고서, 교과교육연구소, p.114.
- 정상섭(2006), “공감적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77~137.
- 홍기선(2002), 『인간 커뮤니케이션』, 나남출판, p.25~26.
- Antonio Damasio(1999), The Feeling of What happens, New York : Harcourt, p.144~169.
- Buber, Martin(1954), Ich und Du, Die Schriften Ubr das kialogishe Prinzip, Verlag Lambert Schneider, Heidelberh, 표제명 역(1996), 『나와 너』, 문예출판사.
- Chaney, A.L.&Burk, T.L.(1998), Teaching Oral Communication in Grade K-8, MA : A Viacom Company.
- John Dewey(1939), “Theory of Valu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p.5.
- Mark Johnson(1993), Moral Imagin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201.
- Lipman, Matthew(1995), “Caring as Thinking” in Inquiry : Critical Thinking across the Disciplines, vol.15, no. 1, pp.1~13.
- Lipman, Matthew(2003), Thinking in Education, second edition, 박진환·김혜숙 옮김 (2005), 『고차적 사고력』, 인간사랑.
- Noddings, Nel(1884), Caring ;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oddings, Nel(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ress. 추병완 외 옮김(2002), 『배려교육론』, 도서출판 다른 우리.

M. Nussbaum(1992), “Emotion as Judgments of value,” Yale J. of Criticism 5, no. 2.

Weil, Simone(1951), Waiting for God. New York : G.P. Putnam's Son, p115.

<초록>

말하기 교육의 내용으로서 ‘배려적 사고’의 개념 탐구

서현석

‘배려적 사고’는 어떤 대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으로, ‘말하기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주체의 의도적 정신작용인 ‘배려적 사고’는 (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2) 판단으로서의 감정이며, (3) 관심 있는 것을 돌보고 보존하며 복잡한 상황에 창의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이며, (4)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며, (5) 감정을 이입하는 사고로서 말하기 능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배려적 사고’는 인간 의사소통의 상호 주관적 특성을 반영하며, ‘국어적 사고력’을 보완하고 우리의 고유한 말하기 방식을 강조할 수 있다 점에서 말하기 교육의 내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적 사고력’을 보완해 줄 중요한 구성 요소로 ‘배려적 사고’를 설정함으로써 좀 더 의미 있고 균형 잡힌 말하기 교육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한 태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고등 사고력으로서 ‘배려적 사고’의 개념을 고찰하고 말하기 교육과의 관련성을 탐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배려적 사고, 판단, 말하기 능력, 국어적 사고력, 말하기 교육의 내용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s of 'Caring as Thinking'
in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Seo, Hyun-seok

'Caring as Thinking' is a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Speech Communication. That is a kind of judgment, which is the concentrating and consideration of somewhat and the sense of the decision about the contents and the ways of expression of communication. 'Caring as Thinking', a intended mental acts, is a primary factor of Speech Communication Ability that is (1) the concentration in what is worth, (2) the emotion of judgment (3) the act of Caring for interesting and Creative thinking with complex situation, (4) the pursuit of what is thought be good, (5) the thinking of sympathy. 'Caring as Thinking'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inter-subjectivity of our communication, supplements the contents of the thinking faculty and emphasize the traditional way of Korean Speech communi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 recomposed 'Caring as Thinking' in a contents of the thinking faculty in Korean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the contents can be balanceable in this stud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consideration of 'Caring as Thinking' as a kind of higher mental processes, not simple aspects of attitude.

【Key words】 'Caring as Thinking', Judgment, Speech Communication Ability, Thinking facul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Contents of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토론문】

〈말하기 교육의 내용으로서 ‘배려적 사고’〉에 대한 토론문

노은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논문은 ‘배려’라는 측면을 하나의 사고로 설정하여 말하기 교육의 내용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배려적 사고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에 치우쳤던 그간의 국어 교육을 보완하고 말하기 교육의 본령인 대인 관계성 지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어 교육에 접근하는 시각을 균형 잡아 주는 흥미로운 연구 과제이다.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읽기나 쓰기에서는 살피기 어려운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전제한다고 할 때, ‘배려적 사고’가 국어교육에서 설정이 가능하다면 다른 영역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말하기, 듣기의 고유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사고 중심의 국어교육이 읽기와 쓰기 영역에 어느 정도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면, 배려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말하기와 듣기 영역이 읽기와 쓰기 영역의 셋집 신세를 벗어나서 이론적 부채(負債)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을 위해 먼저 논문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다. 2장에서는 ‘배려적 사고’가 대안들을 찾고 관계를 발견하거나 발전시키고, 차이를 판단하고 조절해가는 데 작동하는 정신적 작용임을 개념 정의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이러한 배려적 사고가 말하기 교육에서 인간 의사소통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존의 ‘국어적 사고력’을 보완하고, 우리 전통의 말하기 방식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주요 논의를 토대로 의문이 나는 점을 차례대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배려적 사고’는 기존의 인지적, 정의적 사고와는 어떻게 다른가? 연구자

는 배려적 사고가 정의적 사고이면서 또한 인지적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어 교육에서 배려적 사고를 포함시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나뉘어 있던 국어 교육을 보완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상정한 배려적 사고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배려적 사고는 인지적, 정의적 사고와는 다른 영역에서 설정 가능한 것인가? 혹은 인지적, 정의적 사고의 하위 유형인가? 아니면, 인지적 사고와 정의적 사고의 특성을 함께 지니며 그들 간의 상호 역할을 하는 것인가? 문제는 토론자의 능력 부족으로 연구자가 배려적 사고를 어느 선에 위치시켰는지 분명히 읽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쟁을 하기 어렵다. 단, 토론자의 견해로는 배려적 사고가 상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인지적, 정의적 사고와는 또 다른 영역의 사고라기보다는 그들의 조합에 의한 상위의 교육 목표나 지향점이 아닐까 한다. 즉 ‘배려’는 인지적, 정의적 사고와는 그 층위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배려적 사고’는 국어 교육에 적합한 용어인가? 일단 국어 교육에서 ‘배려적’ 혹은 ‘배려적 사고’라는 용어가 낯설고 어색함은 차치하겠다. 연구자는 Noddings(노딩스)를 인용하며 배려적 사고는 ‘가치에 대한 신중한 분별력’임을 지적하고 있다. 토론자가 알기에, 노딩스는 인격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배려의 교육론을 제안하고, 도덕 교육의 측면에서 배려를 위한 대화 교육을 강조하였다. 즉 ‘배려’의 사전적 의미가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씀’이고, 도덕 교육에서 인격 지도의 일환으로 가치 분별력인 배려를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에 비해, 국어 교육에서 ‘배려’를 중심 용어로 다루려면 여러 단계의 해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말하기 지도에서 ‘청자를 배려하여 말하기’, ‘청자를 존중하여 말하기’를 가르친다고 할 때, 국어 교육의 초점은 결국 ‘말하기’에 있는 것이지, 도덕 교육처럼 ‘배려’나 ‘존중’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토론자의 견해로는,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청자를 고려하여 말하기’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인 ‘청자를 배려하여 말하기’를 포함하여 다룰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배려적 사고’가 우리 전통의 말하기 방식인가? 연구자는 서양의 의사소통관이 분명함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우리 교육은 ‘따지고 보면’ 식의 비판적 말투를 양산해 놓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禮)로 상징되는 동양의 의사소통관을 도입하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의도를 잘 헤아려 그에 알맞은 반응을 보이는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양 의사소통관의 차이를 어느 한쪽이 배려가 있고 없음으로 보아서는 안 될 듯하다. 동서양의 배려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방하다. 즉 서양식 배려가 솔직히 말해주는 것이라면 우리식 배려는 살짝 눈감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문화적 차이로 배려적 사고를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반드시 배려적 사고와 대립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배려적 사고에 의한 감정, 인지, 행동인지 설명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교육적으로 설계하여 안내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혹 ‘배려’라는 것을 그간 말하기 영역에서 도외시켰던 것이 아니라 다루기 어려워져 손을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밖에, 배려적 사고의 유형으로 제시한 ‘가치부여적 사고, 정서적 사고, 행동적 사고, 규범적 사고, 감정이입적 사고’ 등은 각각 독립적으로 범주화된 유형이라기보다는 배려적 사고의 특성이나 제 측면에 가깝다.

앞에서 연구자는 ‘배려’가 단순한 태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고등 사고역량을 밝히고 말하기 교육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그럼에도 글 속에서 연구자 또한 ‘배려적 사고’를 자주 말하기 ‘태도’나 ‘방식’으로 환원하고 있다. 결국 도덕 교육이 아닌 이상, 국어 교육에서 ‘배려’가 사고력으로 자리잡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있다. 배려적 사고가 국어 교육이나 말하기 교육 일반에 안착하기에는 많은 해명이 필요하지만, 담화 유형 중 특히 대화는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쉽게 교육 내용을 모색할 수 것이

다. 따라서 토론자의 견해로는 말하기 전반 혹은 국어 교육 전반을 보완하는 장치로 배려적 사고를 도입하기보다는 특정 담화 유형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흔히 토론문을 보면 그 질문이 곧 건설한 비판이 된다. 그러나 본 토론은 그야말로 해독을 위한 질문을 던져 보았을 뿐 대안을 함께 모색하지 못하였다. 각고의 노력으로 논문을 쓴 연구자에게 송구할 따름이다.